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의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5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8.

발 의 자 : 임의자 · 강선영 · 김용태
김위상 · 조승환 · 우재준
조배숙 · 최보운 · 김태호
이종배 · 김성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해당 사업으로부터 ‘직접 도급’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,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·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‘재하도급’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,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

호).

법률 제 호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직접 도급받는”을 각각 “직접 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p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 <p>2.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<u>직접 도급받는</u>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직접 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